



양돈장의 생산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유 성 열

〈삼양사 사료시험장장〉

우리는 “돼지의 생산원가”하면 “비육돈 출하시 까지의 비용”으로 “돼지”를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육돈이 필요로 하는 원가”가 아니라 “비육돈을 키우는 양돈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즉 비육돈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직접비용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의 간접 활동비용도 모두 포함한 것이 “비육돈 생산원가”다.

생산원가는 사료비, 인건비, 경비로 나눌 수 있다. 경비는 다시 감가상각비와 비용으로 나누어 진다. 감가상각비란 투자한 돈으로 만들거나 산 물건이 쉽게 못쓰거나 없어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동안에 나누어서 생산비용으로 잡아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생산원가의 큰 항목들은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자.

비육돈 생산원가에는 비육돈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직접 비용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의 간접 활동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

1. 사료비

사료비는 양돈장의 비육돈 생산원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꾸어 말하면 절약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현장에서도 사료허설이 예상일로 여겨지고 있다.

통상 “사료비”라 하면 “돼지가

먹는 사료의 값”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료회사에 지불한 사료값”이다.

출하하는 돼지가 먹는 사료량, 급이기에 넣어준 사료량, 양돈장에서 구입한 사료량은 절대로 같을수가 없다.

매일의 차이는 작을지라도 한달 일년이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같은 사료, 같은 양을 먹어도 돼지는 개체의 능력에 따라 증체량이 달라진다. 같은 양을 넣어준다 해도 급이기의 구조, 주는 방법, 돼지의 먹는 습관이 틀리면 흘리는 양에 차이가 난다. 급수기의 갯수 구조도 사료비에 영향을 준다. 돈사의 환기상태와 온도는 사료비에 큰 영향을 준다. 만성호흡기 질병과 외부기생충은 더 큰 영향을 준다.

돼지에 따라 사료를 나누면 출

◆◆

출산하는 자돈 한마리당
성돈의 사료량이
적으려면 암퇘지의
분만회전율이 높고
산자수가 많아야 하며
수퇘지의 가동율이
높아야 한다.

◆◆

하비육돈이 직접 먹는 사료와 번식용 암·수퇘지가 먹는 사료로도 나눌 수 있다. 사료의 질이 높으면 성장이 빠른 효과가 있어 필요한 체중에 도달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즉 출하비육돈이 먹는 사료량은 적어진다. 그러나 너무 질이 높거나 비육말기까지 질이 높으면 판매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출산하는 자돈 한마리당 성돈의 사료량이 적으려면 암퇘지의 분만회전율이 높고 산자수가 많아야 하고 수퇘지의 가동율이 높아야 된다.

2. 인건비

인건비란 종업원의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예상되는 퇴직금을 말한다.

인건비는 근무인원수와 급료수준에 따라 양돈장마다 차이가 난다. 근무하는 사람의 작업기술수

준, 1인당 작업량, 근무의욕, 지역별 급여수준, 양돈장의 급여조건, 양돈장 시설수준에 따른 필요 작업인원수 등이 인건비에 영향을 준다. 일을 잘 파악하고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작업의 효율이 높아진다. 한번 진행된 일은 다시 손을 보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과 교육이 있다면 인건비가 줄어들게 된다.

3. 상각비

상각비는 크게 나누어서 종돈상각비와 건물, 시설, 기계 등의 상각비로 나누어진다.

종돈 구입가격, 종돈의 질적 수준, 활용율과 수명은 상각비의 총액과 효율에 영향을 준다. 전업규모 정도라면 자가생산하는 종돈보다는 돈이 더 들어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건물 시설의 투자를 아끼면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심할 경우 돼지 사육에 지장을 준다.

환기와 보온은 꼭 신경을 써야 한다. 절대 인력이 부족할 때는 기계로 할 수 있으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비육돈사 한평이 일년에 열마리를 키워낸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건물, 시설의 수준은 인건비와 사료비에 영향을 준다.

4. 비용

비용도 나누면 돼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사육비용과, 양돈장을 꾸려나가는데 드는 종업원에 필요한 돈, 대외 활동비, 공과금 그리고 사장비용이 있다.

사육비용에는 약품, 소모품 자재비, 작업도구비, 건물과 시설의 보수비 등이 있다.

직원을 위해서 쓰는 후생비, 출장비, 교육비, 협회비, 세금도 적지 않게 듣다.

사장의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사장비용은 사장이 직접 일하는 시간과 반비례한다고 보면 정답에 가깝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돈쓸 시간이 없어서 사장비용이 용돈 정도로 끝나고, 양돈장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주인은 엄청난 금액의 사장비용을 직접쓰게 되고 좀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잊게 된다.

전체 비용은 양돈장이 클수록 많다. 사람수가 많으면 비용도 커진다.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종업원들이 양돈장을 움직여 나간다면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이제 〈표1〉을 보자.
〈표1〉을 보면 양돈장의 생산 원가가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 이들은 어떤 양돈장인가 알아보자

소규모 부업 혹은 500~700두의 양돈장에서 ①과 같은 원가 구성

〈표1〉 양돈장의 생산원가 구성

(단위 : %)

항목	①	②	③	④	⑤	비고
사료비	75~85	70~80	65~75	60	55	
인건비	5	10~15	15~20	15~20	15	
상각비	5	5	5~10	10~15	15	
경비	5~10	10	10	15	15	

이 나타난다. 주인이 직접 작업을 하므로 비용과 인건비는 적고 시설도 직접만들어 시설 상각비가 아주 낮다. 상대적으로 사료비의 비중이 높다. 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암퇘지의 두수가 적으므로 숫퇘지의 효율이 낮고 암퇘지의 번식성이 낮아서 성돈사료의 효율성이 낮다. 아울러 작업의 지속성이 낮으므로 전체의 간접 생산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건물의 활용률이 낮으므로 자돈의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특히 분만사의 온도관리가 어렵다.

②의 양돈장은 암퇘지의 100~150두의 전업형태에서 나타난다. 건물은 조금씩 또는 작은 건물을 하나씩 늘려 지은 곳이 많다. 비싸고 효율이 좋은 시설이 드물고 주인과 종업원이 몸으로 때우는 형태가 많다. 부지가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집단적으로 양돈장이 몰려있을 경우 질병에 대해 항상 불안하게 된다.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시설이 잘된 양돈장을 견학하거나 외국의 새로운 시설을 알아 본다.

주인의 나이가 장년기가 넘었으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③의 형태는 중·대형규모에서 많이 나타나는 원가구성이다. 사장님은 지난 3년간 급격하게 상승하는 급료수준과 인력확보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시설이 넓고 인력은 많이든다. 계속 보수작업을 하고있다. 그러나 양돈장의 규모가 커서 돼지 사육시 작업의 지속성이 좋아 생산성은 그런대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사료비의 효율도 높다. 종업원의 기술수준도 비교적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④는 일반 양돈장이 아니다. 고급수준의 인력이 일하는 양돈장이다. 순종 또는 F₁ 암퇘지를 생산하는 양돈장은 사료비의 비중은 낮고 인건비는 높다. 고가의 종돈을 보유하므로 종돈상각비도 높다. 시설도 비육돈 양돈장에 비해 좋고 건물면적도 넓고 검정시설도 필요하다. 판매, 기술지도, 대외활동비가 많으므로 비용도 많이 든다.

⑤는 선진 외국의 비육돈 양돈장이다. 비육돈의 수익성은 우리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5~10%정

도)

사료비는 우리보다 무척 싸다. 인건비는 높지만 1인당 사육두수와 작업량은 우리에 비해 많이 높고 전업일 경우 대부분 주인이 직접 모든 일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꼭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일만 사람이 하도록하고 나머지는 기계가 하므로 시설비의 비중이 높다. 특히 공해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돼지를 키울수가 없다. 인건비가 높고 금리가 낮은 외국에서는 유지보수가 적고 자동화된 건물과 시설이 투자의 첫째 조건이다. 금리가 낮으므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우리보다 적고, 유지 보수비가 아주 낮아서 추가 경비가 적다.

돼지키워서 생기는 작은 이익을 시설보수를 하는 사람에게 줄수 없으므로 자체에서 전부 해결한다. 실지로 전업규모 정도의 외국 양돈장은 우리나라의 작은 기계수리소 정도의 기계와 공구 그리고 기술수준을 갖고 있다.

사장님 양돈장의 생산원가는 알고계십니까? 구성비는 어떤 형태입니까?

앞으로 원가를 줄이려면 어떤 항목을 줄여야 합니까?

앞으로 사장님은 어떤 형태의 원가구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